



(주)마니커

● LG유통과 신선육 납품계약 체결

국내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인 (주)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 www.maniker.co.kr)가 LG유통과 신선육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주)마니커는 지난해 12월 닭고기 가공업체 5개사가 참가한 신선육 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면서 LG마트 서울, 수도권 지역 및 LG유통 슈퍼마켓에서 2003년 한해 동안 통닭과 부분육 등 신선육 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동종 업체중 유일한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인 (주)마니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최소한 20억 원 이상의 대형 신규거래선 확보로 매출 및 수익성 증대는 물론 전문업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마니커는 경기 남(용인), 북부(동두천)에 닭고기 공장을 각각 보유, 수도권 지역에서 물류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납품대상 점포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냉장 닭고기의 생명인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LG유통과 마니커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신선육 제품의 포장용기를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꾸고 닭고기 제품에 최초로 BI 개념을 도입한 (주)마니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일사료(주)

● 연 30만톤 사료판매 기록 달성

한일사료(주)(대표이사 차상협, www.hanilfeed.com)가 구랍 26일 마침내 연 30만톤 사료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사료에서 식품까지(From Feed To Food), 사료는 식품이다(Feed is Food)” 라는 슬로건 아래 사료산업을 친환경적 식품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일사료(주)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ISO 및 HACC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으며, 최고 품질의 제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가공·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일사료(주)는 이번 계기로 전 임직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사양가는 물론 최종 고객인 소비자도 하여금 믿음으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화인코리아

가금류 수출실적 3백만달러 달성

삼계탕과 오리고기 전문생산업체인 (주)화인코리아(대표이사 나원주, www.finekorea.co.kr)가 가금류 수출실적 3백만 달러를 달성했다.

최근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최첨단 오리가공 종합처리장을 본격 가동시킨 (주)화인코리아는 지난 1991년 삼계탕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 이래 12년동안 생산제품 수출에 적극 나선 결과 지난해 11월 현재 수출실적 누계가 3백만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수출대상국이 일본은 물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대폭 다변화 됐으며, 해당제품도 오리신선육에서부터 삼계탕, 인삼닭죽, 닭도리탕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실적 3백만달러 달성은 가금류 관련 국내계열화 업체를 포함한 국내업계 최초로 분석되고 있으며, 국내산 가금육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일본시장에 2001년 10월 냉동오리를 국내 업계 최초로 처녀 수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오리 신선육을 자체브랜드인 '치키더키'로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향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주)체리부로

2003 영업전진대회 개최



(주)체리부부가 2003년도 내실성장과 경영 체질 강화에 나선다.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 www.cherrybro.com)는 구랍 26일 주요 임직원과 전국 200여개 거래처 대표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한 「2003 영업전

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인식 대표는 이날 격려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1년간 최선을 다해 준 거래처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3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03년 (주)체리부로 경영방침을 「내실성장과 경영체질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 예측경영을 통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도록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또한 (주)체리부로는 육가공의 일본수출, 금계사육 준공, 매출 1천억원 돌파, 중소기업대상 수상 등 1년간의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내실성장 및 경영 체질 강화, 그룹내 체인사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전략적 스타 브랜드 창출 등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 전원은 2003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한국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